

# 27m 공중 낙하... '3초의 예술' 하이다이빙 시작된다



22~24일 조선대 경기장서 진행... 이번 대회 최고 관심종목  
36명 출전, 국내 선수 없어 아쉬움... 구조대원 3명 상시대기

“어휴 10m도 무서운데 27m를 어떻게 뛰나요?” 플랫폼·스프링보드 다이빙 선수들도 ‘ 겁내는’ 하이다이빙 경기가 시작된다. 아찔한 높이(남 27m, 여자 20m)에서 초인적인 몸짓을 펼치는 하이다이빙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축구장에 설치된 다이빙대와 임시수조(지름 15m, 깊이 6m)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FINA(국제수영연맹)는 대회 기간 20여명 이상이 주요 경기를 시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선보였다. 이후 2015 카잔, 2017 부다페스트에 이어 이번 광주대회가 4번째지만 국내에서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하이다이빙에 출전하지 않는다. 국내에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수조 가운데서 뿔어나오는 기포를 보고 몸을 던진다. 입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발부터 입수하는 게 규칙이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8세 미만은 참가할 수 없다. 남자선수의 경우 수속 90km의 속도로 수면과 만난다. 선수들은 공중에서 몸을 비트는 트리스트와 회전을 동작을 연기한다. 이는 고난도 연기 점수를 받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강 속도를 늦춰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구조대원은 남자 12개국 23명, 여자 11개국 13명 등 모두 3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들은 남자 27m, 여자 20m 종목에서 각 1개씩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12개국 23명, 여자 11개국 13명 등 모두 3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들은 남자 27m, 여자 20m 종목에서 각 1개씩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주요 남자 선수로는 영국의 개리 헌터와 미국의 스티븐 로부가 있다. 개리 헌터는 2016·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과 2013·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석권한 하이다이빙의 대표주자다. 스티븐 로부도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과 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이다이빙은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됐다. 입장권(6500장)은 대회가 개막하기 전 일찌감치 판매목표량 100%를 달성했다.

하이다이빙은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변의 고풍스러운 외관을 배경으로 펼쳐져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헝가리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하늘을 날던 하이다이빙 선수의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서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단숨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상징이 됐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21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왼쪽)이 21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주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 박태환 팬사인회 “광주대회 참가 못해 아쉬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박태환이 마침내 광주를 찾았다. 2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아레나 매장 앞은 박태환을 보려는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스포츠용품업체 아레나 전속모델이자 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은 이날 한 시간가량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박태환은 “국내에서 열리는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아쉽다”며 “잘 준비해서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팬 사인회를 찾은 한인석(10·서울시 성북구), 오하율(10·경기도 평택시)군은 “박태환 선수를 2년 전 수영 캠프에서 만나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경기 때만

작용하는 수영모에 박태환 선수 사인을 받았다”며 뒤통이 기뻐했다. 한국과 오군은 올해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각각 접영, 배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수영 꿈나무. 두 학생은 박태환의 사인이 들어간 수영모를 쓰고 더 많은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팬 사인회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탓에 사인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사인화장 주변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김동수(61·광주시 서구)씨는 “아쉽게도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태환 선수를 직접 본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박태환 선수가 빨리 기량을 회복해 쏠망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 “하늘도 도왔다”

태풍 오기전 오픈워터 마무리... 수구도 예정대로 진행

‘하늘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도왔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 얼마 전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16일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하면서 날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종목 76개 세부 종목의 경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 워터 수영, 수구 그리고 하이다이빙은 실외 종목이다.

오픈 워터 수영은 바다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가장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 다행히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인 19일 오전 8시 30분 오픈 워터 종목의 마지막 경기인 남자 25km가 시작됐다. 그리고 태풍이 찾아오기에 앞서 무사히 이 종목에 걸린 7개의 금메달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다. 수구도 “천둥, 번개 등 기상 상황이 나빠 선수 안전에 우려가 있을 시 기술팀원장과

심판이 협의해 경기 중단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날씨에 주목했지만 20일 오후 12시께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바람’을 걱정했던 하이다이빙도 22일 정상적으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나스의 영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일 오전에 예정됐던 하이다이빙 훈련이 차질을 빚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다이빙 플랫폼 등이 미끄러워 안전 문제로 오전 연습 중단이 결정된 것이다.

또 지난 20일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부대 사립국제수영장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Main press center) 입구가 침수되기도 했고, 각 경기장 출입구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 장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육안으로 소지품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 2025년 카잔·2027년 부다페스트, 세계수영대회 개최지

러시아 카잔과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오는 2025년과 202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 결정됐다.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은 21일 광주 남부대 사립국제수영장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카잔과 부다페스트는 10년 만에 다시 세계수

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앞서 2015년 16회 대회가 카잔에서 열렸고, 2017년 17회 대회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됐다. 한편 2021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대회가 열리고, 2023년에는 카타르 도하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 ◇오늘의 광주세계수영

- △경영=여자 배영 100m·남자 배영 100m·여자 평영 100m·남자 자유형 200m·여자 자유형 1,500m·남자 자유형 200m·여자 자유형 100m·남자 접영 50m·남자 접영 100m·남자 접영 100m·여자 평영 100m·여자 배영 100m·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20시·이상 남부대사립국제수영장)
- △수구= 여자부 15-16위 순위결정전 한국·쿠바(8시·남부대 수구경기장)
- △하이다이빙= 여자부 1, 2라운드(11시 30분) 남자부 1, 2라운드(14시·이상 조선대 하이다이빙경기장)

###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 이상 가능한 분

###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다카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 주택 10㎡ 주택건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주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월산동 농성초 옆 도로 2층 주택대지 140㎡ 주택 153㎡ 주차장있음 2억4천
- 대인동 버스도막 709㎡ 건평 810㎡ 사육용 적합 공사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월동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 특급물건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장성군 상성읍 안평리 계획관리지역 3646㎡ 읍에서 5분거리 다세대 등 적합 7억7천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전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9-108호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노반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본 사업의 기본설계(안)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사업의 개요
  - 사업 명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
  - 사업내용 : 호남고속철도 고막원-목포간 본선 43.902km, 경계장 1개소(무안공항) 신설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일원
- 사업의 필요성
  - 경부·호남선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망 완성 및 철도망 연계성 제고
  - 전라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국토 균형발전 기여
  - 호남권(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사업의 효과
  - 고속철도 건설로 철도이용객의 고속이동 서비스 향상, 고속철도와 국제공항 연결로 상호환승에 대한 이용편의 증대, 호남권 지역주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교통생태 편의 제공
- 사업기간 : 2018 - 2025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 소요	기 투입	2018년 까지	2019년	2020년 이후
22,871	-	23	180	22,668

\* 추정 사업비로 설계 결과에 의한 사업비는 추후 확정

-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 공람기간 : 2019.07.22. - 2019.08.04.
  - 공람방법 : 아래의 장소에서 공람자료(사업현황, 노선도 등) 열람(공람장소)
    - 나주시 : 나주시청 건설과(☎061-339-8892), 다시면사무소(☎061-339-3716)
    - 함평군 :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63), 학교면사무소(☎061-320-2673), 언다면사무소(☎061-320-2683)
    - 무안군 : 무안군청 미래전략과(☎061-450-4193), 무안읍사무소(☎061-450-4213), 현경면사무소(☎061-450-4263), 망운면사무소(☎061-450-4273), 정계면사무소(☎061-450-4252), 삼향읍사무소(☎061-450-4233)
    - 목포시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3683), 옥암동주민센터(☎061-270-4911)
-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무안군 : 2019.07.30.(화) 10:00, 무안읍문화예술회관(전남 무안군 무안읍 정포로 8)
    - 무안군 : 목포시 : 2019.07.30.(화) 15:00, 삼향읍사무소(전남 무안군 삼향읍 신기길 20)
    - 함평군 : 2019.07.31.(수) 10:00, 학교면사무소(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 나주시 : 2019.07.31.(수) 14:00, 다시면사무소(전남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75-24)
- 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기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각 시·군(읍·면·동 포함)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해당 시, 군에서 위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 문 의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설계실 토목설계처 (☎042-607-4563, 4566)